뷰티·헬스케어 날개 단 자이글… 흑자 전환

성장기업의 비결

원적외선 그릴 주방가전의 원조
산소발생기·미용기기·화장품 출시

마케팅비 절감, 자체 유통망 활용
"산소 특화된 종합기업이 목표"

'주부들의 로망.' 주방가전 기업 자이글은 한때 생활가전업계에서 이렇게 불렸다. '냄새·연기를 동시에 빼는 그릴'로 알려진 원적외선 그릴을 개발해 주부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자자했다. 인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원적외선 그릴에 대한 인기가 식으며 2018년 말 자이글은 첫 적자 경영에 빠졌다. 이를 타개하는 데 2년이 걸렸다. 효율적인 사업 다각화에 나선 이진희 자이글 대표의 경영전략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히트 상품에 발목 잡혀 적자 경영

2008년 12월 설립된 자이글은 2016년까지 홈쇼핑업계의 스타 가전기업이었다. 홈쇼핑에 자이글 제품만 나오면 주문이 폭주하면서 단기간에 품절을 기록했다. 가장 큰 히트 상품이던 원적외선 그릴은 고기를 구울 때 기름 냄새와 연기가 쉽게 빠질 수 있도록 위에 후드 역할을 하는 자체 장치를 적용한 신개념 제품이었다. 주부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웰빙 그릴'로도 불렸다.

이 제품의 인기에 힘입어 2015년 자이글은 처음으로 매출 1000억원을 넘어섰고, 이 성장세는 이듬해까지 이어졌다. 당연히 회사는 원적외전 그릴 생산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 대표는 "원적외선 그릴 판매에 따라 회사 전체 매출이 움직이는 수준이었다"고 했다.

위기는 2017년 무렵 찾아왔다. 원적외선 그릴 수요가 줄면서 내내 성장을 이어가던 회사에 처음으로 침체기가 찾아왔다. 2017년 말 자이글 매출은 1000억원 미만으로 내려왔고, 2018년에는 급기야 64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이 대표는 해결책 강구에 나섰다. 우선 그릴 중심 사업 재편에 나섰다. 사업영역을 넓히려는 시도가 그중 하나다. 첫 영역은 기존 자이글 그릴의 주요 소비층인 여성을 겨냥한 뷰티산업이었다.

"뷰티·헬스케어 접목한 웰빙 기업 될 것"

2018년 12월 뷰티·헬스케어 브랜드인 'ZWC'를 선보이고 본격적인 뷰티사업 진출에 나섰다. 공기 중 산소와 질소를 분리해 고농도 산소를 만들어내는 산소발생기, 각종 미용기기와 화장품을 줄줄이 선보였다.

사실 이 브랜드는 본래 자이글이 보유한 기술을 토대로 '발상의 전환'을 시도해 탄생한 것이었다. 이 대표는 "산소를 태우지 않고도 열을 내는 친환경 원적외선 그릴을 만들 때 연구한 것이 '필요한 산소를 만들어 고객에게 공급한다'는 새로운 형태의 아이템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했다.

자이글은 불필요한 손실을 최소화했다. 마케팅 비용을 과감히 줄이고, 그동안 구축해 둔 자체 유통망을 최대한 활용해 '적자 줄이기 프로젝트'에 들어갔다. 결과는 지난해 말 나타났다. 매출은 18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1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3년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이 대표는 "원적외선 그릴로 인한 위기가 오히려 약이 돼 회사의 장기 발전을 꾀하도록 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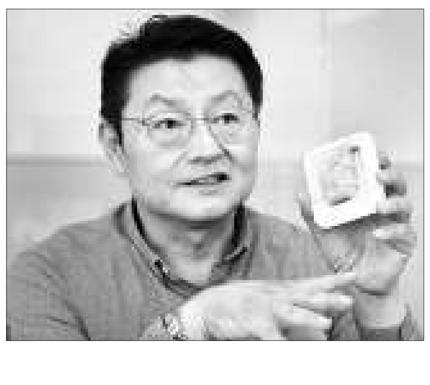
자이글은 이제 단순한 주방가전 기업이 아니다. 지난해 전체 매출의 34%를 뷰티·헬스케어 부문이 차지했다.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2월 ZWC의 중국 위생허가를 획득해 중국 뷰티시장에 진출하는 길이 열렸고, 비슷한 시기 피부 전문 브랜드 피엘메드를 인수해 본격적인 뷰티·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할 토대를 마련했다. 한편으로는 의료기기 3종 개발 생산 허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 대표는 "자이글을 '산소'를 테마로 하는 종합기업으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라며 "뷰티·헬스케어 제품군 안에서 다양한 친환경 제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은 기자

인슐린 패치 출시한 이오플로우 "진통·항암제 주입 제품도 개발"

김재진 이오플로우 대표

국내외 제약사 등과 협의중



"웨어러블(착용형) 약물 주입기는 확장성이 큰 사업입니다. 조만간 국내외 제약회사들과 파트너십, 조인트벤처(JV) 등을 통해 비당뇨 약물 분야로도 영역을 넓힐 계획입니다." 김재진 이오플로우 대표(사진)는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오플로우는 미국 인슐렛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이오패치' 개발에 성공했다. 국내에선 최초다.

이오패치는 복부 등 피하지방이 많은 신체 부위에 패치를 부착해 사용한다. 컨트롤러에 혈당 수치, 탄수화물 섭취량 등을 입력하면 알아서 인슐린 주입량을 계산하고 패치를 통해 약물을 주입한다. 펜형이나 주사기보다 사용이 편리하고, 별도의 주입선이 없어 일상생활에 제약이 없다.

김 대표는 "이오플로우는 세계적 수준의 웨어러블 펌프 기술을 갖고 있다"며 "진통제, 항암제, 성장호르몬제 등 인슐린이 아닌 다른 약물도 주입할 수 있도록 여러 제약회사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제약사들이 개발하고 있는 신약 중 반감기(약물이 체내에서 50%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가 짧은 약물이다. 김 대표는 "효과는 인정받았지만 지속시간이 짧아 꾸준히 투입해야 하는 약물을 웨어러블 펌프를 통해 손쉽게 주입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중적으로 쓰이고 있거나 특허가 끝난 피하주입제 가운데 꾸준히 주입하면 새로운 효능을 볼 제품과도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글로벌 수요는 이미 검증됐다. 현재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분야에서 세계 1위인 인슐렛은 글로벌 제약사 암젠의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뉴라스타 주입용으로 시스템을 납품하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사업이 인슐렛 매출 대부분을 차지했을 만큼 큰 시장이라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이오플로우의 주입 기술은 전하 이동을 통해 피스톤을 움직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계식인 인슐렛 제품보다 전력 소모가 적고, 배터리가 오래 간다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주력 제품인 이오패치도 순항 중이다. 이오플로우는 최근 휴온스를 통해 국내 판매를 시작했다. 다음달에는 유럽 인증(CE)을 받아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시동을 걸 계획이다. 김 대표는 "내년까지 약물 주입기에 연속혈당측정센서까지 결합한 웨어러블 인공췌장도 본격 상용화하는 등 신사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이선아 기자

물 적게 쓰고 빠르게 내리는 '친환경 양변기'

으뜸중기 와토스코리아

수세 성능 60% 개선
절수등급 표시제에 최적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와토스코리아는 48년간 양변기 부품 제조 '외길'을 걸어온 중소기업이다. 한 개의 양변기에는 시트와 커버, 플러시밸브, 호스, 플랜지, 마개 등 30여 가지 부품이 들어간다. 와토스코리아는 이런 부품 제조만으로 연매출 200억원을 거둔 양변기 부품업계 1위 회사다. 이 회사가 세계에서 가장 절수 효과가 좋으면서 수세 성능을 60% 가량 높인 양변기를 출시해 화제다.

와토스코리아의 초절수형 1등급 양변기 'K-TOS 4.0L'(사진)는 변기 물을 1회 내리는 데 10L를 쓰는 일반 양변기에 비해 물 사용량이 40%(4L)에 불과하지만 물 내림 속도를 빨라지게 한 유체역학적 설계로 수세 성능이 훨씬 좋다. 물 사용량이 많을수록 변기 막힘이 없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깼다.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는 "마치 짧은 순간 내리는 폭우가 긴 장마 기간 내리는 비보다 강수량은 적어도 더 많은 피해를 입히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사이펀 현상을 극대화한 양변기 설계로 변기의 오물을 빠른 유속으로 보내 수세 성능을 60%가량 개선했다"고 말했다.

양변기는 보통 물탱크 속 물이 내려가는 힘과 변기 하부 구부러진 트랩에서 발생한 진공 공간의 빨아들이는 힘이 서로 맞물려 세정력이 극대화된다. 기압 차와 중력에 의해 액체가 이동하는 사이펀 현상 때문이다. 와토스코리아는 물탱크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플러시밸브' 지름을 3인치로 기존 양변기보다 1인치 더 늘렸고, 양변기 하부 트랩의 지름도 더 넓혀 물이 내려갈 때 저항력을 줄여 변기 막힘을 최소화했다.

송 대표는 "일반 양변기는 물을 내릴 때 5초가량 걸리지만 이 제품은 2초밖에 안 걸린다"며 "수도요금을 아끼고, 환경도 살리면서 변기 막힘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와토스코리아에 따르면 이 양변기를 설치한 건물은 양변기 50대 기준으로 월 40만원 가량의 수도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송 대표는 '절수등급 표시제' 시행으로 초절수형 양변기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모든 빌딩과 병원, 학교,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 내 2000만 대가량 양변기의 절수 등급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대부분 양변기의 물 사용량은 현행법 기준(1회 6L 이하)을 어긴 8~10L로 교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송 대표는 "2000만 대의 양변기를 매년 200만 대씩 교체해도 10년간 수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절수 등급 표시제 시행은 정부 그린 뉴딜정책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대규 기자

수출유망 중소기업 모집

중기부, 내달 14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는 성장과 수출 잠재력이 높은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1년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을 다음달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출유망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모집하고 있다. 중기부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만902개 업체를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했다. 이달 기준 지정 유효 업체는 2686개다.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2년 동안 중기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여섯 개 기관의 수출지원사업에 우대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다. 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네 개 보증기관의 수출금융·보증지원 우대, 기업은행, 농협 등 10개 금융기관의 금리·환율 우대 등 총 20개 기관으로부터 78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년도 직간접 수출실적이 500만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2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수출지원센터 웹사이트에서 하면 된다.

민경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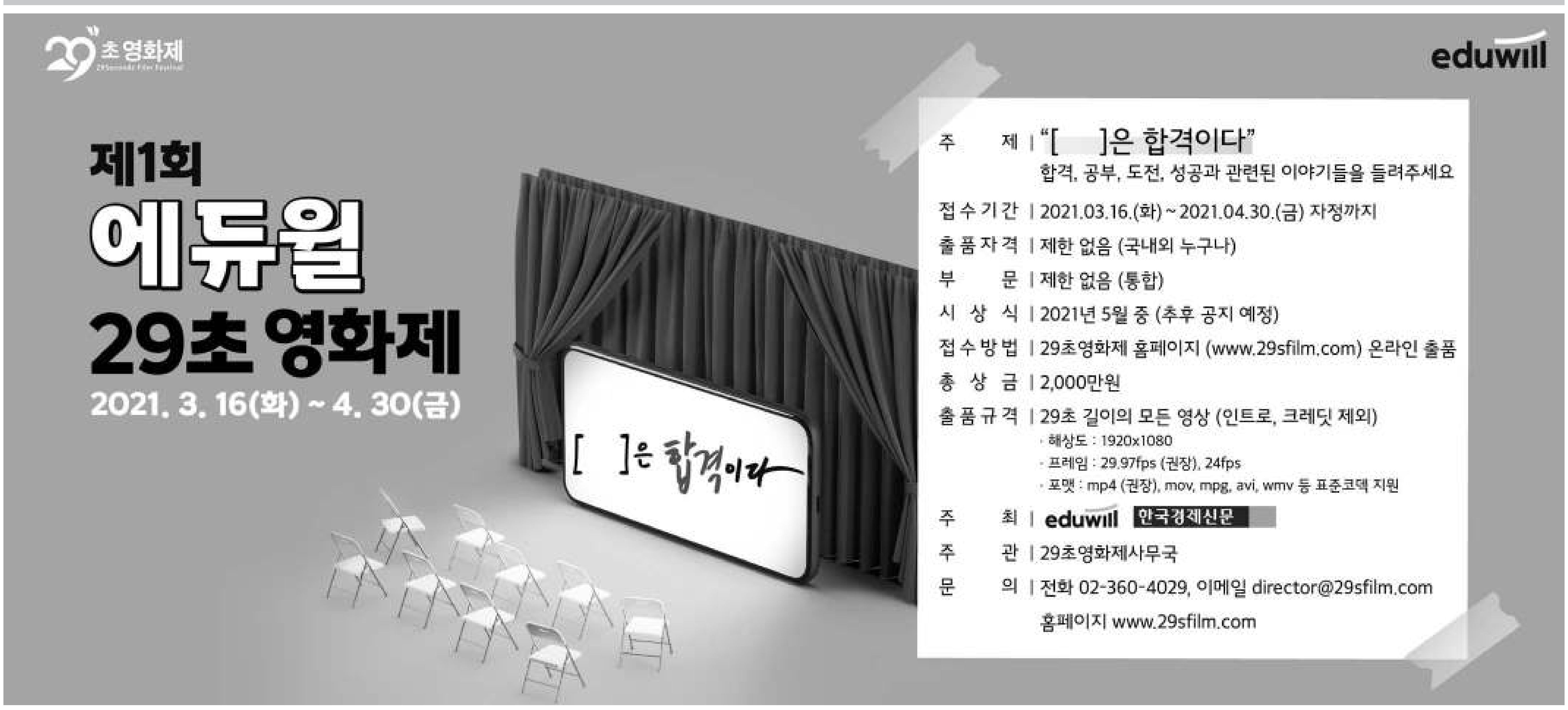
中企 고용·자금 사정 11년 만에 최악

제조업 생산 5년전에도 못미쳐

작년 중소 제조업체의 생산이 급락해 5년 전 수준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고용과 자금 사정 역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25일 '코로나19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환경 변화 분석 결과'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작년 중소 제조업 생산지수는 94.0으로 전년 대비 4.2포인트 감소해 2년 연속 100 미만을 기록했다.

작년 중소기업 취업자는 2009년 이후 11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특히 중소기업 일시휴직자는 75만 명으로 전년(34만4000명) 대비 40만6000명(118.4%) 증가했다. 이 가운데 사업 부진·조업 중단 사유로 인한 일시휴직자는 36만 명으로 전년 대비 673.3% 늘었다.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지수(BSI)는 2019년 72.3에서 지난해 66.3으로 6.0포인트 떨어졌다. 2009년 통계 작성 이후 60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금사정지수가 100 이상이면 호전, 100 미만이면 악화를 의미한다.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2019년 716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804조6000억원으로 12.3%(87조9000억원) 증가했다.

노 단장은 중소기업의 사업 전환을 촉진하고 '한국형 PPP(급여보호 프로그램)'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은 2021년 1조1485억엔을 투입해 중소기업 등의 사업 재구축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금융기관 참여 아래 중소기업의 사업 전환 컨설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대규 기자